

CT
251
393K

설교자 칼빈과 그의 설교

지도교수 허 순 길

고신대학 신학대학원

신 학 과

하 진 명

 고신대학교



DM00003306

설교자 칼빈과 그의 설교

지도교수 허 순 길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1994 年 11 月

고신대학 신학대학원

신 학 과

하 진 명

하 진 명의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고신대학 신학대학원

199 년 월 일

목 차

I. 서 론

II. 예비적 고찰

1. 설교의 정의 및 중요성
2. 설교자

III. 설교자로서의 칼빈

1. 칼빈의 생애
2. 칼빈의 성경관
3. 설교자 칼빈

V. 칼빈의 설교

1. 설교의 주제
2. 설교의 방법
3. 설교의 내용
4. 설교의 목적

VI. 결 론

참고 문헌

I. 서론

영국의 저술가이며 정치가인 존 모를리(John Morley)경은 “서양 발달사에서 칼빈을 제외하는 것은 마치 한 눈을 감고 역사책을 읽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1)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서양의 역사와 서양인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그는 내성적이고 신중한 한편 신경질적이며 소심한 성격이었으며, 더구나 몸은 쇠약할 대로 쇠약해서 계속되는 위장병과 두통, 천식과 신경통과 같은 병과 싸우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병구(病軀)의 범인(凡人)이 온 인류에게 끼쳐준 종교, 신학, 정치, 사회 그리고 경제 방면의 영향력은 어느 개혁자의 그것보다 훨씬 위대하다. 그는 위대한 개혁가요 저술가이며 신학자이고 주석가이다. 이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칼빈을 평가한다면 칼빈을 온전히 보지 못한 것이다. 칼빈의 진면목은 그가 매일 설교했던 성 피에르(St. Pierre)교회의 강단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3) 그는 매일 1회 이상 그 강단에 모습을 드러내었고 이를 위한 노력은 실로 그의 일생을 바쳤다. 4) 그는 진정 설교의 사람이었고 설교자였다. 칼빈이 이룬 일생의 개혁운동도 성 피에르 교회에서 선포된 설교사역속에서 방향이 제시되어지고 있으며 그의 모든 신학은 설교에 봉사함으로써 세워진 것들이다. 도우메르그(E. Doumergue)라는 학자는 칼빈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보는 바에 의하면 칼빈의 참 모습은 설교자였다. 16세기 개혁의 가치를 말씀으로 체계화한 제네바의 설교자, 그가 바로 칼빈이다.” 5)

그러기에 칼빈은 단순한 개혁가 또는 신학자라는 일반적인 이해의 차원을 벗어나 설교자로서의 그의 진면목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

1) 루이스 W. 스피츠, 『종교 개혁사』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1), p. 197

2) 잉그베 브릴리오드, 『설교사』 (서울: 기독교문사, 1978), p. 204

3) Ibid.

4) Ibid., p. 225

5) Ibid., p. 226

므로 필자는 미흡하지만 칼빈의 설교들과 그의 다른 작품들, 그리고 칼빈에 관한 저술들 가운데서 설교자로서 칼빈과 칼빈의 설교관, 그리고 칼빈의 설교 세계 자체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연구를 위해 예비적으로 설교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그리고 설교자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설교자로서의 칼빈과 그의 설교관, 그리고 그의 설교 자체를 연구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작업이다. 이의 연구를 위해 그의 전 설교와 전 주석들을 살펴보기는 여러가지 사정상 힘든 것이다. 더구나 『칼빈의 저작전집』에 포함된 방대한 라틴어 설교집들은 무척 난해한 것들이다. 그리하여 필자가 접할 수 있는 자료들은 영어로 번역된 부분들과 칼빈과 그의 설교에 관한 2차적 자료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기는, 그의 설교세계가 선명하게 밝혀져 본 논고를 대하는 자에게 조금이나마 유익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II. 예비적 고찰

설교자 칼빈과 그의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교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그리고 설교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예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유익한 줄로 안다.

1. 설교의 정의 및 중요성

1) 설교의 정의

설교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화와 훈화, 하나의 종교 강연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⁶⁾

설교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학자들이 정의를 내렸다. 존슨(Herrick Jonson)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사람을 구원하려는 계획과 목적에서 사람을 감동하도록 권면하는 법있는 종교적 강화다.”⁷⁾고 하였다. 맥네넨(David A. MacLennan)은 “설교는 은혜의 효율적인 수단으로써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교회의 체험이었다.”⁸⁾고 하였다. 설교를 광범위하게 정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이요 생명의 말씀의 전달이다”⁹⁾고 하였으며 티자르(Leslie J. Tizard)도 “설교는 인간 단독 행위가 아니고, 단순히 발음하고 있는 사람의 말도 아니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¹⁰⁾으로 보았다. 로이드 존스(D. M. Lloyd Jones)목사는 “설교는 언제나 설교자와 청중 사이에서 생사 문제와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 져야하고 설교는 단순한 지식의 분배가 아니며 더 큰 무엇이다.”¹¹⁾고 하였다. 루돌프 브렌은 “설교란 하나님께 부름 받은 설교자가 성령의 인도에 의하여 성경의 말씀을 고백으로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증거하는 것이다.”¹²⁾고 하였다. 복음적 설교의 대가인 칼

6) 후등광삼, 『설교학』, 광철영 역(서울: 혜문사, 1979), p. 17

7) 광안련, 『설교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5), p. 16

8) Clyde Reid, 『The Empty Pulpit』, 『설교의 위기』, 정장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2). p. 30

9) 후등광삼, op. cit., p. 67

10) Clyde Reid, op. cit., p. 32

11) D. M. Lloyd-Jones, 『목사와 설교』, 서문강 역, (서울: 예수교 문서선교회, 1981), p. 59

빈은 바른 설교란 “증보자되신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된 곳에 오시리라는 대망을 들려 주어야 하며, 인간으로 하여금 목회자의 목소리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해 주는 것”¹³⁾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접하고 점검되어 우리 사상과 감정의 해부를 받게 되는 것¹⁴⁾, 이것이 있을 때 바른 설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신약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설교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사업을 성취하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이 새로운 복음을 공중에게 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¹⁵⁾ 이상의 정의들을 요약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¹⁶⁾ 설교는 설교자가 인간 생활과 그 삶의 전망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는 것이며 인간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설교는 설교자의 사상을 전하거나 세상적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¹⁷⁾

2) 설교의 중요성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여야 한다.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일 때에만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선포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선포하던 사도 및 선지자들을 직접 계승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때 설교는 설교자 자신의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다.¹⁸⁾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12) 루돌프 브렌, 『설교학원론』, 박근원역,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0), p. 21

13) 웰레이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설교” 『칼빈신학 논문집』 (서울: 기독교 문화협회, 1986), p. 244

14) 이근삼, 『칼빈, 칼빈주의』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8), p. 37

15) 한영제, 『기독교 대백과사전 8권』, (서울: 기독교문사, 1985), p. 1165

16) 김병원, 『목회학』,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5), p. 166

17) Ibid., p. 167

18) 고린도후서 5:20

신비로움과 하나님이 인간의 말을 통하여 그의 말씀을 증거하신다는 사실은 인간의 말로는 이루다 설명할 도리가 없다. 19)

교회에서는 인간의 말로 선포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20) 그러므로 어떤 설교자든지 그 설교자의 진정한 위대함과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설교를 통하여 선포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21) 이런 의미에서 설교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가 있다. 제임스 데인(James Danne)은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22) 라고 하였다.

또한 “설교는 하나의 신비의 사건이요 교회 안에 선포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다. 또한 영향력있는 사건이다. 선언된 말씀의 힘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손안에 남아 있다” 23) 설교의 중요성에 대하여 부루너는 “진정한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있는 곳에서는 이 지구 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행해지고 있다.” 24) 고 보았다. 뷰렌(Daul M. Van Buren)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주력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시들어 죽게 된다” 25) 고 함으로서 교회와 설교의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로이드 존스(D. M. Lloyd-Jones) 목사는 “개인 상담이나 그의 모든 활동은 설교를 보좌하는 수단이지 설교보다 앞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였다.” 26) 스토틀(John-Stott) 목사도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이 전념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거룩한 활동이다. 그러므로 그 일은 어쩌면 천사들조차 부러워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늘의 궁정을 버릴 만한 일인 것이다.” 27) 라고 하였다. 오늘 한국교회의

19) 제임스 데인, 『능력있는 설교』, 이태웅, 송헌복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6), p. 22

20) Ibid.

21) Ibid.

22) Ibid. p. 15

23) Ibid., p. 14

24) C. Reid, op. cit., pp. 32-33

25) C. Reid, op. cit., p. 31

26) D. M. Lloyd-jones, op. cit., p. 43

27) John-Stott, The art of preaching in the Twentieth century, 정성구역, (서울: 풍만출판사, 1983), p. 43

현실에서도 얼마큼 설교의 중요성이 요구되어지고 있는가는 너무나 명확한 일인 것이다. 설교와 교회성장의 관계는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견해들을 종합해 볼 때 마땅히 설교는 하나님의 역사로서 세상의 어느 사업보다도 초월하고 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설교가 중심이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그것은 주된 사역은 아니었다. 주님의 첫번째 사역은 복음 전파였다. 나사렛 회당의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 그리고 주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려고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것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셨다”²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²⁹⁾ 하였고 또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의 말에서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딤후 4:22)고 함으로 복음증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은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D. M. Lloyd-Jones)목사는 강력하게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그가 말하기를 강단에서의 복음전도는 성령에 의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 자기 설교가 끝나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단이 되었다.³⁰⁾고 하였다. 이어서 그는 설교는 언제나 맨 앞에 서야하며 어떤 것에도 자리를 빼앗겨서는 안된다는 것만은 강력히 주장한다.³¹⁾고 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성서 신학자들이 설교를 학문의 최종 목표로 봄으로써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8) 존 부라더스, 『설교학개론』, 정성구 편저, (서울: 세종문화사, 1983)p. 39

29) 마 6:33

30) D. M. Lloyd-Jones, op. cit., p. 40

31) Ibid.

2. 설교자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설교자의 임무가 “명상하는 것과, 명상한 모든 것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³²⁾ 설교자는 과연 아퀴나스가 말한 것처럼 명상하는 것과 명상한 모든 것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자일까? 아니면 설교자는 누구란 말인가? 필자는 신약에서 설교자들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들과 행적들을 살펴보므로 설교자가 어떤 자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윌라드는 그의 책 『강단과 설교자』에서 설교자의 다섯가지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1) 전령(Herald)으로서의 설교자³³⁾

설교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를 번역할 때에 우리가 사용하는 중요한 동의어가 ‘선포하다’(to proclaim), 혹은 ‘(소식을)전하다’(to herald)라는 단어이다. 이것은 설교자가 바로 ‘전령’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령의 역할은 무엇일까? 전령은, 저자거리에서 공지(共知)사항을 외치며 돌아다니는 직원처럼, 주인이 전하라고 들려준 내용들을 그대로 전파하는 대변인 이었다. 그는 자기 주인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말했다. 그렇지만 전령은, 누구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메시지를 수정하거나 어떤 것을 가감할 수는 없었다. 이 칭호가 적절하게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설교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위탁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명칭의 문제점은 설교에서 인위적이며 정적인 특징들을 발달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전령은 확실히 설교자의 성격 가운데 한 국면을 묘사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신약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이 특별한 칭호에 주의해야 하며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야 할 청중의 다양함과 그 필요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게 되도록 해야 한다. 기독교의 전령은 언제나 ‘말하는 한 인간’(a person speaking)으로 인식되어야 한다.³⁴⁾

32) 윌라드 F. 자부쉬, 『강단과 설교자』, (서울: 소망사, 1989), p. 10

33) Ibid., p. 15

34) Ibid., p. 19

2) 일군으로서의 설교자³⁵⁾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교하는 일과 관련하여 자신이 “교회의 일군”이 되었다고 말한다. (골 1:25) 그리고 디모데 역시 바울로 부터, 전하기만 하면 선한 “그리스도의 일군”이 될 것이라는 권면을 들었다. (딤후 4:6), ‘디아코노스’(섬기는 자, 종)라는 단어가 복음서에서는 겸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반면, 바울 서신에서는 겸손은 물론 기독교 선교, 곧 바울이 이미 받은 바 있는 고상한 임무를 위한 긴급한 헌신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딤후 4:2, 고후 5:14)

복음의 직무가 제 아무리 거룩하고 제사장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직무(Service), 곧 다스리는 자 아닌 관리하는 자(Minister)인 비천한 일군의 일인 것이다. ‘디아코노스’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음식을 나르고 술을 따랐던 하인과 다름없다. 디아코노스는 자기 주인의 지시를 행하며, 손님들이 접대받는 것을 보아야 한다. 바울이 설교자를 묘사하기 위하여 ‘일군’(Slave)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충격적이기까지 할 것이다. 이는 구약에서의 ‘에벤 야훼’(여호와와 일군)에 해당하는 말로서, 당신의 구원계획을 성취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당신의 도구, 혹은 대리자로 삼으셨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고전 3:5) 구약에서 ‘에벤 야훼’라는 말은 가장 영광스러운 표현이었으나, 이는 “하나님의 일군”에게서 인간적으로 취할 만한 어떤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비천한 인간을 당신의 도구로 지명해 주셨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설교자는 일군이자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할 때에 목사들의 호사스러움과 허식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35) Ibid., p. 19

3) 청지기 (Steward)로서의 설교자³⁶⁾

“그리스도의 종”과 같이 비천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직무개념을 담은 칭호가 있는 반면에, 설교와 관련하여 보다 많은 자율권이 허용되는 ‘청지기’, 혹은 ‘관리인’(Manager)이라는 다른 칭호가 있다. ‘오이코노모스’는 음식물을 배분하는 임무를 지닌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다. (눅 12:42)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하나님의 비밀의 청지기”라 말했다. (고전 4:1) 따라서, 가족들은 모두를 살찌우고 튼튼하게 해주는 음식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이 청지기로서의 그들의 직업이요, 설교자의 직업인 것이다. 청지기는 주인의 자녀들과 다른 하인들 모두의 필요와 시절을 따라 적합한 종류의 음식과 적당한 양의 음식을 내어 놓는다.

기독교 설교자와 청지기가 필요한 것을 꺼내오는 식품 저장소는 참으로 특별한 것들 - “하나님의 비밀” - 로 가득차 있다. 우리는 이 놀랍고 멋진 비밀들을 위탁받았다. 가족의 청지기로서 ‘음식’을 배분해야만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공급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머리에서 짜낸 고상한 메세지, 새로운 지혜를 억지로 제안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 임무로 남겨진 물건들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추호의 낭비나 어리석음도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모호하게 하거나, 그 메세지를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정말로 가치있는 청지기가 되는 데에는 많은 것이 따르게 된다. 여기에는 조심스런 구상(planning), 즉 사람들의 식욕을 자극하고, 그들의 식상해 버린 미각을 신선하고 유쾌한 맛으로 기쁘게 해 주기 위하여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풍부하게 차려낼 구상이 있어야 한다. 훌륭한 청지기는 자기가 접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와, 필요와, 연약한 점과, 역성을 알아차린다. 강단에 이런 좋은 청지기가 있을 때 수많은 가족들이 물려들 것은 확실하다.

36) Ibid., p. 22

4) 아버지로서의 설교자³⁷⁾

사도 바울은 자신을 특정한 몇몇 개인들 뿐만 아니라 고린도 사람, 갈라디아 사람,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아버지'라 부름 받기를 망설이지 않았다. 충직한 청지기라도 주인 가족의 시중은 의무만으로 하는 법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 식구를 사랑과 깊은 애정으로 돌본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경험했듯이 슬프게도 청지기는 바뀔 수 있어도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훌륭한 아버지의 사랑의 한계는 확실히 말하기는 실로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만일, 우리가 바울의 '아버지' 비유를 받아 들인다면, 설교자가 이런 회중을 향한 당연한 사랑을 가지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극단을 달리는 사랑이며, 설교자로 하여금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서슴치 않도록 부추기는 사랑이며, 험사리 측정되거나 댓가를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다.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면(고전 4:14~17), 오늘날 그와 똑같은 복음의 설교자도 또한 아버지가 된다.

부모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좋은 부모의 특징에 관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설교자와 부모의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어떤 한계들을 용납할 만한 어려운 시기를 맞은 부모의 사랑은, 복음을 설교할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5) 하나님의 동역자(Coworker)로서의 설교자³⁸⁾

바울과 아볼로 및 디모데(살전 3:2)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가운데서 설교자의 역할을 잘 표현하는 이 아름답고 대담한 칭호를 얻었다. '신 에르고스 데우'는 "하나님의 동역자", 즉 "하나님과 공동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보다 더욱 품위있는 이름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떤 일이 이보다 더 고상하고 가치있을 수 있는가? 어떠한 직업이 이처럼 놀라운

37) Ibid., p. 26

38) Ibid., p. 33

수 있는가?

구원에 관한 매우 중요한 계획(project)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몇몇 마지못해 하는 조력자들(helpers)과 함께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계신 듯이 보인다. 그는 우리들 자신이나 서로에 대해 가지지 못한 신뢰와 존중을 우리에게 대해 보이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역자로서 각자의 장점을 쓰려 하신다는 사실이야말로 모든 설교자들이 직면하는 커다란 신비인 것이다.

III. 설교자로서의 칼빈

1. 칼빈의 성경관

1) 칼빈의 성경관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의 종교계의 명확한 차이점은 성경에 대한 태도가 새로워진 것이다³⁹⁾. 칼빈은 어느 종교 개혁자 보다도 의식적으로 성서의 제자가 되고 성서의 가르침에 따르려고 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성서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참되고 정당한 교리에 관해서는 매우 적은 지식도 가질 수 없다.”⁴⁰⁾고 한다. 뿐만 아니라 칼빈의 성경관의 원리는 성경 전부를 신의 계시로 받았다.⁴¹⁾ 그리하여 칼빈은 언제나 성경 전체를 조명하여 강론하였고 성경이 가는 곳에 그도 갔으며 성경이 머무는 곳에서는 자신의 주장도 멈춘 것이었다.

칼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성경뿐이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혼란한 지식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거룩한 입을 여시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은사이다.”⁴²⁾라고 한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기 위해서는 성경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증거하시는 것을 경건하게 받아들일 때 참된 이해는 시작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이러한 순종에서 나온다고⁴³⁾말했다.

한철하는 “기독교 신앙없이는 진실로 기독교회라 불리우지 못할 것이다. 성경에서 얻은 기독교의 신앙은 그 양과 깊이와 명확성에 있어서 인간에게 필요한 최대 관심, 최고의 높이의 척도”⁴⁴⁾라고 한다. 따라서 칼빈에 있어서의 성서관은 매우 바람직한 복음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성서를 주신 목적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창조물

39) A. 데킨, 『칼빈주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55), 이병섭 역, p. 239

40) 칼빈, 『기독교 강요』, 김문제 역, (서울: 혜문사, 1982), I. 6. 2.

41) 남궁현, 『칼빈신학과 현대생활』(신학지남 44권 3호, 1937), p. 34

42) 『강요』, I. 6. 1.

43) Ibid.

44)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서울: 기독교서회, 1970), p. 16

인 자연계와 역시 그의 피조물인 사람의 종교감정을 통한 적절한 성령의 역사만으로는 그분의 섭리를 완전히 깨달을 수 없다고 한다.

하나님의 고도의 복잡다단한 세상속에서도 자신의 계시를 효율적으로 전파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말씀을 세상에 주셨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성실하게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이 바른 길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하나님에 관한 정확하고 생생한 기록인 그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된다. 45)

칼빈은 성서를 하나님이 자기의 계시를 보존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 기록된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한다.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딤후 6:16) 그 하나님 얼굴의 빛은 우리가 말씀으로서 지도를 받기 전에는 설명할 수 없는 미궁과 같은 것이 되고 만다. 46)고 해석한다. 그러기에 칼빈의 성경관은 영 죽을 죄인들이 말씀에 의존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높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성서는 ‘성령의 학교이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아서 유용하고 필요한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또한 알아야 할 중요한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 47)

따라서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탁의 총체이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서가 무사하게, 손상되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내려왔음을 보증해 주셨다. 그러기에 이 책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명령한다. 48)

45) 이종성 『칼빈의 기독교 강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8), p. 16

46) Ibid., p. 17

47) 『강요』, 김문제 역, III. 21. 3.

48) Ibid., I. 1. 1.

이와 같이 칼빈은 철저히 성서중심의 성서관을 가지고 성경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있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였고 성경이 가는 곳에 자신도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자기 자신도 멈추기를 노력했다.

2) 칼빈의 성경해석

칼빈의 설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선택받은 죄인들이 은총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강조한다. 칼빈이 주장한 하나님 중심사상은 구원의 근거가 인간의 선행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에 있다고 보았다. 이 사상은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성경말씀의 근거에서이다. 이러한 칼빈의 성경해석은 그의 신앙과 모든 삶의 규범에서 성경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나온 것이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망령에 어찌나 빠지기 쉬운지, 그리고 선뜻 각종 오류 가운데 기울어 지는지 신기하고 허망한 종교 따위를 때때로 날조하고 저 마음을 먹게 되는지를 우리가 음미해 본다면 우리가 등한히 하기 때문에 망하거나 또는 오류 가운데 빠져 소멸되거나 혹은 인간들의 방자하고 뻔뻔스러운 것 때문에 타락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와같은 하늘로부터의 그의 문서가 필요했다.⁴⁹⁾

이와같이 칼빈은 성서를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과 사랑의 보살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총으로 해석한다.

칼빈은 또 성경해석을 빵덩어리에 비유하여, 설교자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행하듯이 청중들에게 관대히 말해야 한다고 한다.

49)Ibid., I. 6. 3.

여기 빵이 있고 그 집 주인에게는 그 큰 덩어리빵을 들지도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이 그 빵을 먹고 싶어 할 때 그들은 이 큰 빵들을 이로 깨물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여기서 매우 단단한 빵겉질을 발견할 것이다. 결국 그들은 많이 먹을 수 없고 여전히 배가 고프는 상태에 설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에까지 쾌히 응하시어 그가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을 주셨을 때 ----- 그는 한 선한 아버지처럼 더욱 풍성하게 빵을 자르고 그 조각들을 우리 입안에 넣으주시며 그것들을 씹어 주시기를 원한다. 50)

여기서 ‘빵을 자르고’라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요, ‘각 시대에 따라 인물과 현재의 사건들을 따라서’ 성경을 푸는 것이다. 51) 목사는 주석가가 되기 위하여 부름받은 것이 아니요 오히려 교회의 요구와 시대의 필요성에 따라서 성경의 메시지를 해석하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것이다.

성경해석에 대한 칼빈의 견해에 대하여 박건택은 『칼빈과 설교』에서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첫째, 청중들의 부응하여 각 신자가 그 설교에서 자신의 몫과 분깃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설교해석은 간결하게 해야 한다. 이 간결성은 칼빈이 좋아했던 특성들 가운데 하나이며 그는 이 간결성이 설교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랐다. 셋째로, 용기있게 행해져야 했다.

52)

칼빈은 성서를 영감받은 기자가 자신의 언어로 전달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다. 그런고로 칼빈은 말씀의 효능을 설명할 때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고 한다. 53) 그런데 이 말씀의 이해와 깨달음은 반드시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50) Com., 디모데후서 12번째 설교

51) Com., 데살로니가전서 설교

52) 박건택, 『칼빈의 설교』, (서울: 도서출판 나비, 1988), pp. 68-69

53) 『강요』, 김문제 역, I. 1. 2.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학교인 것이다.⁵⁴⁾ 왜냐하면 성서는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과 생각을 알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자연계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 없으므로, 성서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하여 써여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만이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신 것임을 주장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칼빈의 성경해석은 타락한 죄인들의 자신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발견치도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자기 계시의 방법은 예수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이루어가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도리로서의 유일한 길임을 천명하고 있다.⁵⁵⁾ 이처럼 칼빈의 성경해석은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의 구원을 크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해석하여 설교할 때 참된 복음적 설교가 될 수 있다.

54) 『강요』, 김문제 역, 1.6.4.

55) Ibid., 1.6.1.

2. 설교자 칼빈

1) 말씀의 종으로서의 칼빈

칼빈은 신학자이기 이전에 목회자요 설교자였다. 설교학자들이 칼빈을 가리켜서 한 “말씀의 종으로서의 칼빈”이란 표현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⁵⁶⁾칼빈이 실제로 설교자로서 활동한 것은 슈트라스 부르그(Stras-barg)에서 3년간(1538-1541)과 제네바로 돌아와서 약 20년간이었다.

칼빈은 어거스틴과 크리소스톰 이후 천년만에 나타난 가장 유능하고 가장 건전하고 가장 분명한 강해 설교자였다.⁵⁷⁾칼빈이 이러한 위대한 설교자가 된 것은 그의 지식과 함께 하나님과 복음을 향한 열정, 그리고 그의 의지력이었다. 그는 하나님앞에서 겸손하였고 말씀 앞에 철저히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의 말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말씀의 종으로서의 칼빈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근대 칼빈 연구의 대가인 에밀 두메르그(Emile Doumergue)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유익한 줄 안다. 그는 1909년 칼빈의 탄생 403년 되는 해에 칼빈이 일생동안 설교했던 제네바의 성 삐에르(St. Pierre)교회에서 기념강연을 했다. 그 강연에서 그는 설교자로서의 칼빈의 모습을 부각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칼빈을 말씀의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단지 말씀만이 영혼들을 붙들며, 영혼을 깨 뚫으며, 영혼을 조절하며, 지도하며, 불을 태우며, 냉각시키고, 변화시킵니다. 칼빈은 때로 히브리 국가를 붙들고 그 민족을 일으켰던 모세와 선지자들처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때로는 밀란과 콘스탄티노플의 군중들을 강단 아래로 붙들어 매었던 위대한 감독들인 암부로스나 크리소스톰처럼 설교했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2년간 플로렌스(Florence)를 개혁시켰던 개혁자 사보나롤라(Savonarola)처럼 칼빈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칼빈은 25년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목사로서 또는 교수로서 강단에서 몇달간 매일 말씀을 증거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56) 정성구, “강해설교자로서의 요한 칼빈”, 『목회자와 설교』, (서울: 도서출판 품만, 1987), p. 76

57) Ibid.

몇 주간씩 하루에 두번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장로회에서 권고의 말씀을 하는가 하면 금요일 모임에서는 시 의회에 말씀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한문장으로 말한다면 칼빈은 말씀으로 16세기의 개혁과 정신을 주도한 제네바의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그 개혁운동을 성취하였습니다. 58)

2) 설교자로서의 칼빈의 태도

설교자로서 칼빈은 참으로 진지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혹자는 칼빈이 절대적 즉흥 설교의 원리를 세웠다는 사실을 들어 그의 설교준비의 부실함을 비난한다. 그러나 칼빈은 하나님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구실하에 노력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의 태도를 비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내가 겸손히 책이라도 한번 들여다 보지 않고 경솔하게 ‘아 좋아, 내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할 말을 내게 주실거야’라고 말하면서 마땅히 선포해야 하는 것들을 읽거나 생각해 보는 수고도 하지 않고 성경을 어떻게 회중에게 적용해야 덕을 세울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해 보지 않고 강단에 나왔다면 나는 매우 교만하고 건방진 너석일 것입니다.” 59) 그는 성경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의식을 늘 품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충실히 연구하였고 청중들의 필요에 맞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수사학을 공부하였지만 수사학적인 기교를 피하였고, 자신의 박식함을 뽐내기를 거절하였으며, 속담과 같은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제네바인들 특유의 표현들을 구사하여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고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애썼다. 60)

칼빈의 설교자로서의 태도를 말할 때 또 한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그는 자신을 결코 신자들과 다른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58) 정성구, 『강해설교자로서의 존 칼빈』, op. cit., pp. 82-83

59) 박건택, 『칼빈과 설교』, (서울: 도서출판 나비, 1988), p. 129, 칼빈의 신명기 49번째 설교

60) Ibid., p. 130

자기가 선포한 말씀에 자신이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여겼다. 그는 선언하기를 “각자는 자기의 신앙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내가 설교할 때 거기서 나의 몫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 나는 소경보다 더 할 것입니다.”⁶¹⁾ 그는 이러한 외침을 또 다른 설교에서 반복한다. “타인을 가르치고자 할 때 우리는 매일 배운다는 생각으로 강단에 올라야 합니다. 강단에 서서 나는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듣도록 하기 위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학생이 되어야 하고 또 나의 입에서 흘러 나오는 말씀이 나를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할 것입니다.”⁶²⁾ 칼빈은 특수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가 다른 모든 신자들의 처지와 동일하다고 여겼다. “주님은 나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양무리의 일원이길 원하셨습니다. 나의 목소리가 귀에 들릴 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양무리 뿐 아니라 그 양무리의 일원인 나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⁶³⁾

칼빈은 또 설교자로서 자신이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기 위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영예와 은혜를 주사 나로 하여금 우리 모두가 복종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규범인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나의 인품부터 문제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원하면서도 내가 거기서 빛나가게 된다면 나는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⁶⁴⁾

칼빈의 강단에서의 실제 설교 자세는 생동감이 넘쳐 있었으며 자세하고 직접적이었으며 분명했다. 그는 설교가 그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설교했다. 설교에 대한 그의 열정은 대단했고 강단에 서있는 자신을 잊을 정도로 깊이 몰두하였다. 이러한 깊은 열정으로 설교에 임했기에 글을 쓰는

61) Ibid., p. 131, 야콥은 택하시교 에서는 버리심에 대한 12번째 설교

62) Ibid., 시편 119편의 두번째 설교

63) Ibid., p. 133, 디모데전서의 18번째 설교

64) Ibid., p. 190

만큼이나 쉽게 마음에서 부터 우러나오는 말을 할 수가 있었다. 그는 거칠고 격렬하게 성을 낼 줄도 알았고 친절하고 자비로울 줄도 알았다. 때로는 무서운 재판관과도 같았고 때로는 아버지와 어머니와도 같았다. 65)

3) 칼빈의 설교사역

그의 설교사역은 병약한 그에게 과중한 업무였다. 처음에 그는 일요일에 두번, 그리고 매주 월, 수, 금요일에 한번씩 설교했다. 그러나 1542년 가을에 그의 설교를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이 더 자주 설교해 줄 것을 강청하기에 이르렀고, 1549년 10월 부터는 보통 주일에 두번 설교했고 격주마다 매일 설교하게 되었다. 때로는 주일 오후에 시편을 강해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개 주 중에는 구약을 강해하고 주일에는 신약을 강해하는 것이 관례였다. 66)

그는 제네바에서 수백명(때로는 800명)의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한편으로 제네바의 실제적 통치자로 스위스, 불란스, 화란, 영국,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고문으로 일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훌륭한 책을 많이 저술하였다. 이런 와중에서도 그는 매일 설교한 셈이다. 예컨대 그는 매일의 날씨가 적힌 200편의 신명기 설교를 일년간에 걸쳐 마쳤다.

베자가 쓴 칼빈의 전기를 보면 칼빈은 일년에 286번의 설교를 했고 일년에 186번의 신학강좌를 담당했다고 한다. 67) 우리는 여기서 칼빈의 설교자로서의 지칠 줄 모르는 정열을 엿볼 수 있다. 칼빈의 주석책들은 사실상 그의 강해설교와 신학강의의 열매였다. 그리고 그의 설교는 주석을 확장시키고 적용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칼빈의 설교는 청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그의 어조는 분명했고 활기찼으며 예리하였다. 물론 칼빈은 당당한 육체와 풍부하고 낭낭한 음성, 유창한 웅변력은 갖추지 못했지만 어떤 육체적인 힘이나 재능이 보충

65) Ibid., p. 190

66) T. H. L. Parker, 『John Calvin』 (London: J. M. Dent & Sons Ltd, 1975), p. 187

67) 정성구, 『강해설교자로서의 존 칼빈』, op. cit., p. 76

해줄 필요가 없는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68)

칼빈의 설교자로서의 명성은 만년에 이르러서도 지속되었는데, 가끔 행 정부의 관심의 초점이 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1559년 6월 19일 시 의회의 기록엔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칼빈의 설교를 들으려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69) 그는 지상에서 최후의 시간이 다가오던 1564년까지 설교를 쉬지 않았다.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했지만 그의 제자들이 기어이 강행했던 것이다. 위대한 설교자는 이렇게 외쳤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교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의 말씀을 전파하겠다는 것 이외에 아무런 생각도 갖지 않고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십니다.” 70) 두메르그는 칼빈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보는 바에 의하면 칼빈의 참 모습은 설교자였다. 16세기 개혁의 기치를 말씀으로 체계화한 제네바의 설교자, 그가 바로 칼빈이다. 71)

68) Ibid., p. 81

69) Ibid.,

70)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 상권(서울:장신대 출판부, 1986), pp. 209-210

71) Ibid., p. 226

IV. 칼빈의 설교

1. 설교의 주제

칼빈의 설교주제는 한 마디로 성경에 관한 주제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위엄성이나 예정설이나 신의 섭리나 교회 규율에 관한 엄격하고 논리적인 강의는 아니다.

또한 영주나 교권을 남용하는 카톨릭교도나 우둔한 신학적인 적수를 공격하기 위한 도구만은 아니다. 사실 이런 요소들이 칼빈의 설교에서 발견될 수는 있으나 엄격히 말해서 그것들이 설교의 주제가 아니었다. 본문이 읊기에서 따온 것이면 그 귀절을 설명하고 실제로 적용시키고 에베소서에서 따온 것이면 또 그렇게 했다.

오늘날 유행하는 방법처럼 성경에서 한 귀절을 따내 그것을 읽고는 그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을 설명하고 설교하는 식으로 성경을 무시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주석에서처럼 그는 설교에서도 본문에 철저히 복종의 태도를 취하며 저자의 의도를 설명하기 위해 힘썼다. 그러므로 그의 설교는 성경과 마찬가지로 많은 주제를 가지고 있었다.⁷²⁾

성 삐에르에서의 설교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더불어 믿음을 가진 자들의 복종하는 생활이었다. 칼빈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성경말씀이 설교 되어지는 곳임을 계속 말했고, 설교에서 청중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엄선된 수사학적 도구를 사용했으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책임을 가지고 그의 청중에 편에서 계속 일깨워주는 그의 노력은 어떤 설교에서든지 나타났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 즉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도 스스로 계시며 그의 행함이나 계시에 있어서도 완전히 자유로운 절대적 주권자이심을 그는 항상 가르쳤으며 그의 성경 본문해석에는 언제나 인간은 말씀을 통하여 그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절대로 피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사상은 그의 어느 설교이

72) 정성구, 『칼빈의 생애와 사상』, (서울: 세종문화사, 1980), pp. 271-272

든지간에 5분 정도면 나타난다고 한다. 73)

아무튼 칼빈은 설교할 때 생동감이 넘치고 열정적이며 직설적이면서도 격렬하게 화를 낼 수도 있었고 또 매우 온화하여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몇가지 표현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법칙을 배척하고 더 이상 입 밖에 내어 말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이들을 곧 개나 돼지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설교 속에서 매우 격렬하게 그들을 반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무릎을 꿇고 그가 당신에게 어떻게 가르치는 지를 배우도록 하십시오. 74)

73) 정성구, “칼빈의 설교연구(1)”, 『신학지남』(1979. 3), p. 54

74) 함덕신, 『칼빈의 설교한 연구』(신학 석사학위 논문, 장신대학교, 1982), p. 87, 재인용

2. 설교의 방법

칼빈의 설교는 성서의 연속적 강해 설교이며 성서주해와 별로 다름이 없는 설교였다. 그의 설교는 제목이 없는 것이 많은데 이는 설교의 연속 강해로 인하여 서이다.⁷⁵⁾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의 설교의 몇을 귀한 유산으로 받고 있다. 그중에 어떤 것은 오늘의 입장에서 보면 싫증이 나도록 반복이 많은 설교이다. 그는 주일 이외에도 한 주일에 세번 어떤 때는 매일 보는 예배에서 설교했다. 그것은 성서의 연속강해 설교이며, 성서주해와 별로 다름이 없는 설교로써 오늘날 주석의 모범을 이루는 설교였다.

루터의 설교는 전투적이며 “믿음으로 의로워 진다.”는 것을 주제로 하여 로마 카톨릭에 대하여 일전을 불사하는 기개가 나타나 있는 것은 그가 개혁의 급선봉에 있었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칼빈의 설교에 있어서는 성서를 그대로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강해해 나가는 방법이였다. 그리하여 칼빈의 설교에 있어서의 석의는 언제나 성실한 석의적인 설교였다. 뿐만 아니라 강단에서의 그의 설명은 설명을 위한 설명이 아니었다. 그의 말씀의 봉사는 설명임과 동시에 적용이며 상아탑 안에서의 현학자적인 석의가 아니고 성실한 민중적 석의였다.⁷⁶⁾

루터에 있어서의 예배는 설교를 중요시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것과 결부시켰으나 칼빈에 있어서는 예배는 완전히 설교에 중심을 둔 것이였다. 칼빈은 주의 만찬을 경시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즉 성서의 증거이며 설명인 설교가 예배의 주요 부분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볼때 종교개혁의 정신은 진정한 의미에서 칼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성했다고 할 것이다.⁷⁷⁾

그의 설교는 성서의 한자 한 귀절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설교였다. “그의 성서를 읽을 때는 때로는 축어영감을 주장하는 것같이 생각이 될 때도 있다. 만일 축어 영감이란 것이 성서가 모두 성령의 인도로 된 것이라는 뜻이라면 그는 분명히 축어영감을 굳세게 말했을 사람이다. 그는 충분

75) 후등광삼, 『설교학』 광철영 역(서울: 혜문사, 1979), p. 63

76) Ibid.

77) Ibid.

히 설교준비를 한 결과이겠지만, 설교할 때에는 원고를 가지지 않고 했다. 그것은 그의 강단서의 말은 성령에 이끌린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⁷⁸⁾ 비스테벨라(Biestervela P.)는 “칼빈의 설교에 있어서의 석의는 성실한 설교이다”라고 말하였고 성서의 설교는 석의가 불가결한 방법⁷⁹⁾이라고 볼 때 칼빈의 설교는 강해설교의 좋은 표본이다. 설교가로서의 칼빈은 자기가 설교한 본문에 성실하려고 크게 애썼으며, 자기의 신학적 학식을 총동원하여 성경말씀의 현실적(actual)의미를 발굴해 내는데 노력했다. 그에 의하면 성서를 활용하지 않은 강해는 죽은 것이었다.⁸⁰⁾

칼빈은 모든 설교사에 등장하는 성서 강해자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왜냐하면 그의 성서해석은 자기 동시대의 어느 설교가보다도 알레고리적 해석의 틀을 벗어나서 정통적인 주석을 하였기 때문이다.⁸¹⁾

그리고 칼빈의 설교는 매우 잘 준비된 설교를 요구했다. 이러한 준비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데서 시작된다. 디모데전서 47번째 설교에서 칼빈은 설교하는 세가지 방법을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번째 방법으로, 설교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하여 걸치레하지 말고 오직 백성의 유익과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두번째 방법은 잘못된 교리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헛된 수다에 몰두하는 것인데 그이유는 그 방법이 호기심에 찬 쓸데없는 문제들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번째 방법은 백성들의 영혼들을 거것으로 “중독시키고----- 그 정신들을 수많은 환상으로 가두며, 그리하여 신자들을 교화시키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 미신으로 향하게 하고야마는 방법이다.”⁸²⁾

그런데 이 방법들 가운데 칼빈은 첫번째 유형의 설교를 택했다. 왜냐하

78) 후등광삼, pp. 63-64

79) Ibid., p. 63

80) 잉그베 브릴리우드, 『설교사』, 홍정수역(서울: 기독교문사, 1978), p. 228

81) 최청수, “설교를 통한 한국감리교회 갱신에 관한”(Acts, D.Min 학위논문, 1985), p. 85

82) Com., 디모데전서 47번째 설교

면 곧 목사는 신자들에게 “좋은 양식”을 가져다 주기위해 강단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83)

그는 본문을 해석하는 설교기술의 대가가 되었다. 복음서에서 따온 귀절이든 구약성서 해석이든 그는 그 본문의 순서에 대한 맹목적이고 근시안적인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심오하게 분석해 들어감으로서 그 말씀이 자기의 강단 밑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할 수 있었다. 84)

우리 구주께서는 설교자가 주의 백성을 불러 모으고, 주께 복종하도록 하는 나팔이 될 것을 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말씀의 설교 속에 현존하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은 마땅히 경외와 찬송을 받으실 분이요,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예정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 예정의 천명이 명백해진 것은 바로 설교되진 말씀과의 관계속에서이다 85)

83) Com., 디모데후서 13번째 설교

84) 잉그레 브릴리우드, p. 229

85) Ibid., p. 229

3. 설교의 내용

설교가 “성경적 진리를 전하는 것”(딤후 4:2)이라고 할 때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은 일견(一見) 우문(愚問) 같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라이드(C. Reid)가 지적한 바에 의하면 오늘날의 설교가 당면한 문제는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다.⁸⁶⁾ 그는

오늘날의 설교가 모든 인간들의 번덕스러운 일과 걱정거리들을 취급하고 있지만 성경의 내용으로 시작하여 끝을 맺지 못하고 있다. 만약 우리 설교자들 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공신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87)

라고 말하면서 설교의 위기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떠난 설교의 내용임을 지적한다.

칼빈은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에게 당신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성경말씀을 주셨다.”⁸⁸⁾고 하면서 “말씀이 없이는 신앙도 없다.”⁸⁹⁾고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성경을 활용하지 않는 설교는 죽은 것”⁹⁰⁾이었다. 이러한 그의 말들을 통해 볼때 그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였을까는 명약관 화해진다. 그는 성경의 본문에 놀라울 정도로 복종하여 “성경 전체를”(Scriptura tota)를 설교 했으며 “성경 만을(Scriptura sola)설교했다. 그는 성경이 자신의 메시지를 말하도록 하는데만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의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 주권, 예정, 섭리, 교회의 권징에 관한 엄격한 것, 그리고 정부, 대중, 교황제도를 공격하는 것등을 포함하는 것이었을지라도 그의 설교의 주제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고 언제나 성경의 주

86)Clide Reid, The Empty Pulpit (New York:Harper L. Row, 1967).

정장복 역, 『설교의 위기』,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p. 36

87)Ibid., p. 37

88)Ibid., I. 6. 1

89)Ibid., I. 6. 2

90)Ibid., I. 6. 3

제였다. 그의 설교에서 선포되었던 것들을 예를 들면,

멸망의 위협이 아니라 영생의 약속,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그의 선하심과 자비, 인간의 공로의 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의 인정, 그 당시의 미신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순종의 섬김과 자기 희생의 강조, 고해성사의 거부가 아니라 복음의 두 가지 영광스런 성례 등-----91)

이었다. 이를 요약하면, “그리스도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속과 신자의 순종의 삶이다.” 이것을 더욱 압축시킨다면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사실 칼빈의 설교 가운데는 성경의 어느 부분을 해석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92)

칼빈의 설교는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다. 93) 그의 성경적 설교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설교였다. 그에게 있어 설교란 단순히 교리 전달이나 윤리적 교훈의 전달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전달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으며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무익하고 무의미하다고 하였다. 칼빈은 우리가 최후로 안주해야 할 곳이 하나님의 순종하신 선함과 자비하심의 세계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전달의 방법으로 성례전과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깨닫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94) 칼빈의 그와 같은 확신은 성인이나 교회 전통을 말씀 선포와 동등한 권위로 인정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재 세례파에 대하여 강경한 어조로 변증할 수 있었다. 95) 또한 칼빈의 설교내용은 하나님의 영광과

91) T. H. L. 파커,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p. 194

92) 정성구, “칼빈주의와 설교”, 『신학지남』 44:3, (1977.9), P. 89

93) 이근삼, 『칼빈, 칼빈주의』,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8), p. 27

94) Ibid., p. 45

95) Ibid., p. 40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었다. 또한 칼빈의 설교중에서 강조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서”(Coram Deo)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기독교 강요의 첫장에 나타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의 명제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의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이 알고 행해야 할 바를 가르친 것이다. 96)칼빈은 말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의 본질과 의와 지혜와 권능의 완전성을 바라 볼 때 전에 우리를 즐겁게 하였던 열락은 이제부터 가장 큰 죄악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97)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칼빈은 인간을 하나님의 면전에 세워서 자기를 점검하기를 원한다. 그의 성경 해석은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보이신 하나님의 시선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피할 수없음을 지적한다.

96) 『강요』, 김문제 역, I.1.1

97) Ibid., I.1.2

4. 설교의 목적

1) 신앙을 주기 위해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출간하고, 또 그것을 끊임없이 개정하였던 정확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주기 위함이었다. 1536년판 「기독교 강요」의 서문인 “왕에게 보내는 서한”(Epistle to the King)에서 칼빈은 그 목적을 이야기 한다.

존경하옵는 폐하, 이 책을 착수한 저의 목적은 ... 참된 신앙속에서 올바른 가르침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98)

뿐만 아니라 그의 1539년의 라틴어판 서문에서는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신학 연구에 전념하려는 사람들을 성서연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의 손길을 주기 위함이다. 99)

그러나 진정한 목적은 강요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려서 복된 영생으로 인도하고자 함이요, 후반부는 (전반부에 예속된 것) 우리들 자신에 관한 지식을 주기 위함이다. 100)

이렇게 볼 때 칼빈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복음적 설교의 논지는 이 강요의 목적에서 찾을 수 있듯이 신앙(믿음)을 얻게 하려는 것이요, 또한 이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며, 이 신앙(믿음)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믿음의 정의를 발견하는 것이다.

98)프랑시스 웬델, 『칼빈의 신학서론』, 한국칼빈주의 연구원편역, (서울:기독교 문화협회, 1986), p. 155

99)Ibid., p. 158

100)이종성, 『강요』, I. p. 54-55

환언하면 칼빈의 설교의 논지는 우리가 이렇게 되리라(To do-to be)는 율법주의적 설교의 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드셨다.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할 수 있다.”(To do-to be)는 것을 주는 것에 복음적 설교의 논지가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볼때 우리가 칼빈의 복음적 설교를 정의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서의 역사등을 통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에 감격하여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소유를 보장해 주심을 통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약속을 깨닫게 하고, 갈망하고, 간구하여 기다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소유를 보장해 주심을 기다리는 바램임을 알 수 있다.

칼빈은 이 믿음의 정의에 대하여 말하기를 “믿음의 느낌이 여기 있으니,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의 수단에 의해 그의 죄를 사함받아 의롭다 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그리하여 복음의 가르침에 의해 인식할 때 그는 그의 구원을 소유하게 된다.”¹⁰¹⁾이것이 Kerygma 설교의 핵심이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지식은 어디에서 올까?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 본질상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속에서의 하나님,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때 보다 정확히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지)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믿음의 지식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어떤 하나님이 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를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체가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기

101) Ibid., III, p. 11-16

를 원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고로 믿음
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그의 의지에 관한 지식이다. 102)

즉 지각이 “하나님의 의지의 명백한 지식을 즐기는 것, 그것이 믿음에
있어서 첫째되고 그리고 주된 점이다.”(III, ii, 19)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의지”는 “선하신 의지”임을 알아야 한다. 왜
냐하면 “믿음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지의 지식이요”
(III, ii, 19),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선한 의지를 아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견고성이 있기 때문이다.”(IV, xiv, 10)

이렇게 볼 때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알게 해 주는 하나님을 우리에
게 가르치기 위해 칼빈이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
이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이 “구
원”이다. 즉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는 구원하시는 의지이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의 거져주는 약속에 의지하기까지는 결코 우리에게 확고하지
못함”을 칼빈은 주장한다.

지금까지 칼빈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요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
에서 거져주시는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이며, 성경
의 메시지의 핵심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는 것이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요 우리의 구원
자로 보는 것”¹⁰³⁾인데 칼빈에게 있어서 이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그가 쓴
기독교 강요의 요점이요 칼빈의 복음적 설교의 핵심되는 부분이다.

102) 『강요』, 김문제 역, III. 2. 6

103) Ibid., II. 6. 1

2)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칼빈에게 있어서 복음적 설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항상 하나님의 교리에 궁극적인 관심을 집중시킨다. 뿐만 아니라 그 사상에 대한 관심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더불어 생각을 시작하며,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과 끊임없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생활을 증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칼빈은 그의 강요 제1권 제6장 1절에서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에게 당신을 알리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주셨다.” 이 성경을 주심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됨으로 우리가 그를 영접하게 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려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친히 그 말씀의 빛을 더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가고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특색을 부여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마음의 어떠한 안정한 곳을 찾지 못하여 우왕 좌왕하며 떠 있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어서 유대민족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선택하여 다른 민족과 같이 미로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 주위에 울타리를 둘렀던 것이다. 물론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뿐만 아니라 구속주로까지 알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지식은 확실히 그의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순서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으로 알게 해 주는 지식이 먼저 온다. 그리고 다음에 둘째로 그것만이 죽은 심령들을 살릴 수 있는데 여기에는 더 친밀한 내적 지식이 결부된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세상의 창조주요, 또 삼라만상의 유일한 창시자요 심판주로서 뿐만 아니라 증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를 가진 속죄주로서 알게 되는 것이다. 104)

이렇게 볼 때 칼빈의 복음적 설교는 듣는 이로 하여금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신앙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엡 3:8~10). 그리하여 이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시는 신적인 계획의 전부를 받아 들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받을 만한 의지도 또한 그 무엇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의 타락으로 인하여 오직 지옥의 나락으로 영원히 떨어질 수 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의지를 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기 때문이다. 105)

3)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

루터가 성서에서 재 발견한 복음의 진수가 예수였던 것처럼 칼빈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칼빈은 성서를 유일한 설교의 자료로 삼음으로써 루터와 함께 “오직 성서만”(sola scriptura)의 원리에 공감하였고, 나아가 루터에게 다소 결여된 “성서전체”(scriptura tola)를 설교함으로, 성서적 설교의 본류에 섰다.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일관한다.

그럼 이 성서 전체의 설교는 어떠한 설교인가? 그것은 설교자가 성서의 66권의 정경중 일부만을 성서의 진정한 말씀으로 생각하거나, 성서의 많은 진리들 중에 어느 한 진리만을 진리의 전부인양 강조하고자 할 때 기억해야만 할 성서의 중요한 원칙으로서 첫째, 구약과 신약을 같은 성서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설교이요, 둘째, 성서의 역사적 사실성과 실존적 의미를 같이 강조하는 설교이다. 세째, 말씀의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을 같이 강조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설교이다. 106)

104) Ibid., I. 6.1

105) J. 그린, 『칼빈주의의 어제, 오늘, 내일』, 정성구 역, (서울: 세종문화사, 1985), pp. 15~16

이렇게 볼 때 대중적 설교가로서의 칼빈은 루터와 비교할 수 없으나 그의 설교는 다른 각도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루터에게 있어서 설교는 어디까지나 예배안에 성례전과 더불어 한 요소에 지나지 않았지만 칼빈에게 있어서는 예배의 중심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¹⁰⁷⁾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설교였다.

좀더 분명하게 성경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설교의 핵심으로 입증해야 할 확증을 칼빈은 다음과 같이 강요에서 밝히고 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 1:18), 히브리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데, “옛적에 선지자들로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히 1:1~2).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히 1:3)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졌다. 바울은 고전 10:4에서 그리스도는 출애굽 사건의 영도자였다고 말한다. 더우기 바울은 고후 4:6에서 “어두운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말한다.¹⁰⁸⁾

이렇게 볼 때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 질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성서가 우리의 마음에 와 닿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을 회심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106) 이증표, 『교회 성장과 케리그마 설교』(서울: 도서출판 쿰란, 1988), pp. 69~71

107) 잉그베 브릴리오드, 『설교사』, 홍정수 역, (서울: 교문사, 1980), p. 9

108) 『강요』, II. 9. 1

되시는 것이다.”¹⁰⁹⁾ 모든 성서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통일되며 성경의 어느 부분을 설교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과 연결되어 질때만 복음적인 설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칼빈이 주장하는 복음적 설교의 정의이다.

여기에 대하여 바우만(J. D. Baumann)도 설교가 가져야 할 조건을 들면서 복음적 설교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다. “설교는 항상 유신론적 설교일 것,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일 것, 신, 구약성서에 모두 근거하는 설교일 것, 전체 복음이 드러날 것” 등이다.¹¹⁰⁾ 실러(schieler)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속역사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와 다르지 않다고 한다.¹¹¹⁾ 혹 스트라(Hoeckstra)도 그리스도 없는 설교는 이미 설교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신, 구약 어느 부분을 택론하고 설교할 때의 중심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¹¹²⁾

그러므로 칼빈의 설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항상 말씀의 중심에 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만을 나타내는 설교로만 일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칼빈의 설교를 바로 복음적 설교로서의 모범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109)Ibid., I. 9.3

110)J. D. Baumann, 『현대설교학 입문』, 정장복(서울: 양서각, 1983), p. 126

111)정성구, 『설교학 개론』, (서울: 세종문화사, 1980), p. 126

112)Ibid., p. 61

V. 결 론

지금까지 필자는 칼빈의 설교집과 칼빈 연구의 이차자료를 이용해서 설교자로서의 칼빈과 그의 설교세계를 살펴 보았다. 신학자요 주석가, 또는 개혁자로서의 칼빈은 역사 속에서 부각되어 왔으나 설교자로서의 칼빈은 상대적으로 가리워졌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칼빈은 신학자나 주석가이기 이전에 목회자요 설교자였다. 칼빈은 그 자신도 그렇게 말했듯이 강단의 사람이었고 어거스틴과 크리소스톰 이후 천년만에 나타난 가장 유능하고 가장 건전하고 가장 분명한 강해설교자였다. 우리는 여기서 칼빈의 설교자로서의 지칠 줄 모르는 정열을 엿볼 수 있다. 칼빈의 주석책들은 사실상 그의 강해설교와 신학강좌의 열매였다. 그는 지상에서 최후의 시간이 다가오던 1564년까지 설교를 쉬지 않았다. 두메르그의 표현대로 “칼빈의 참 모습은 설교자”였다. 그가 이룩한 종교개혁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였고 제네바시를 변화시켜 나갔던 것이다.

칼빈이 설교학에 관한 책들을 직접 쓴 일은 없다. 그러나 그의 방대한 설교집과 그의 저작물들을 통해 그의 설교세계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 본 칼빈의 설교세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칼빈에게 있어 설교의 주제는 한마디로 ‘성경’이었다. 그의 설교는 철저히 성경중심의 강해설교였다. 칼빈은 성경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고 오직 성경이 가는 곳에 자신도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자기 자신의 말을 멈추기를 힘썼다. 그는 성경의 본문에 놀라울 정도로 복종하여 “성경전체를”(Scriptura tota) 설교했으며 “성경만을”(Scriptura sola) 설교했다. 그는 성경이 자신의 메시지를 말하도록 하는데만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그의 설교에서 선포된 것들을 요약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속과 신자의 순종의 삶”이다. 이것을 더욱 압축시킨다면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칼빈

의 설교는 철저히 복음적인 설교였다. 칼빈의 설교는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고, 그에게 있어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치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설교란 단순히 교리전달이나 윤리적 교훈의 전달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전달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으며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무익하고 무의미한 것이다. 칼빈은 이러한 성경관과 설교관을 가지고 말씀의 종으로서 말씀을 강해하였던 것이다.

칼빈은 교회를 개혁시키고 교황제도를 타파하기 위하여 바른 성경관을 정립하고 은혜의 교리를 가르치고 설교사역에 전력을 다하였다. 그리고 설교를 엄격한 말씀에만 국한시켰고 참 설교는 구원하는 복음의 선포라고 하였다.

참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여 구원을 얻게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고, 발견하고 또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생각하고 그것을 설교한 칼빈은 참된 설교자였으며, 그의 메시지는 오늘을 살고 있는 한국의 설교자들이 본삼아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 한국교회 설교자들의, 설교자로서의 칼빈과 그의 설교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해져서 한국강단이 날로 새로워지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A. 국내 서적 및 논문

- 곽안련, 『설교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5)
- 남궁혁, “칼빈신학과 현대생활”, 『신학지남』, 44권 3호(1977)
- 박건택, 『칼빈의 설교』, (서울: 도서출판나비, 1988)
- 이근삼, 『칼빈, 칼빈주의』,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8)
- 이종성역, 『칼빈의 기독교강요』(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8)
- 이중표, 『교회성장과 케리그마설교』(서울: 도서출판 쿼란, 1988)
- 장세종, “칼빈주의적 설교가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
목회학 박사학위논문,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1987
- 전범준, “칼빈의 복음적 설교적용”, 신학 석사학위논문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1990
- 정성구, “강해설교자로서의 요한칼빈”, 『목회자와 설교』
(서울: 도서출판풍만, 1983)
- “칼빈주의와 설교”, 『신학지남』, 44권 3호(1977)
- 『칼빈의 생애와 사상』, (서울: 세종문화사, 1980)
- “칼빈의 설교연구”, 『신학지남』, 46권 1호(1979)
- 『설교학 개론』, (서울: 세종문화사, 1980)
-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上, (서울: 장신대출판부, 1986)
- 최청수, “설교를 통한 한국감리교회 갱신에 관한 연구”,
목회학 박사학위논문,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1986
- 한철하, 『고대기독교사상』, (서울: 기독교서회, 1970)

B. 번역 서적

- A. 데킨, 『칼빈주의』, 이병섭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55)
- C. 라이드, 『설교의 위기』, 정장복역,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 로이드 존스, 『목사와 설교』, 서문강역, (서울:예수교문서선교회, 1981)
- 루돌프. 보텐, 『설교학 원론』, 박근원역,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 루이스W. 스피츠, 『종교개혁사』, 서일영역, (서울:기독교문서선회, 1991)
- 윌라드 F. 자부쉬, 『강단과 설교자』, 홍성훈역, (서울:소망사, 1989)
- 윌레이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설교", 『칼빈신학 논문집』
(서울:기독교문화협회, 1986)
- 잉그베 브릴리오드, 『설교사』, 홍정수역, (서울:기독교문사, 1978)
- 제임스 데인, 『능력있는 설교』, 이태웅, 송헌복역
(서울:두란노서원, 1986)
- J. 그린, 『칼빈주의 어제, 오늘, 내일』, 정성구역,
(서울:세종문화사, 1985)
- J. 다니엘바우만, 『현대설교학 입문』, 정장복역, (서울:양서각, 1983)
- 칼빈, 『기독교 강요』, 김문제역, (서울:혜문사, 1982)
- T.H.L. 파커,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김기찬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86)
- 프랑시스 웬델, 『칼빈의 신학서론』, 한국칼빈주의 연구원 편,
(서울:기독교문화협회, 1986)
- 후등광삼, 『설교학』, 각철영역, (서울:혜문사, 1979)